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는 자들과 없다는 자들 두 종류로 살아간다. 신은 자기를 인정해야 나타난다.
2. 사람끼리도 자기를 인정해야 자기를 나타내듯이, 신도 자기를 인정해야 나타내신다. 사람이 신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보다 수천만 배 수준이 낮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겠느냐. 신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
3. 어느 한 곳에 각종 괴상망측한 죄를 지은 자들이 모여 쫓값을 받고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살던 자들도 있어.” 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다 죄인들만 있어. 쓸 만한 사람 하나 없어.” 했다. 큰 자는 자기를 인정하고 큰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서 그가 인정하는 대로 말한다. 나 역시 절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만 말해 주며 나타냈다. 하나님도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조금씩 나타나 역사하신다.
4.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본으로 주신 ‘신성’이 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사상과 생각으로 이 신성을 없애버린 자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차원 높여서 살면, 사탄은 그를 꺾어 왜 육적으로 살지 않냐고 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성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뜻이라 한다.
6. 사탄은 수천 가지 이론을 펴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좋고 편하게 유혹한다. 사탄이 좋게 해 주는 것은 결국 멸망시키는 일이다.

7. 보이는 사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탄이다.

8. 세상을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들이 밀려온다. 문제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 답만 보고 가라. 주님이 답이다.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와도 성자 주님이 답이다.

9. 문제를 쳐다볼 것 없다. 답만 향해서 가라. 정확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답이다.

10. 시대 사명자가 답이다. 그만 보고 가라.

11. 확신은 실체를 이룬다.

12.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의 문이 열려 실제로 주님을 만나 보게 된다.

13. 사람들은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확인받고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도 선생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해 준다. 왜? 자기가 어디까지 견디면서 하는지에 따라 자기 진로와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 준다.

14. 절대 주님을 중심하고 행한다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그 답이 틀릴 수도 있다. 왜? 자기가 가다가 변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어도 그 대답이 틀리게 되는 것이다.

15.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기 운명, 자기 진로의 길이 좌우된다.

16. 절대 끝까지 주님과 일체 되어서 가야 된다. 끝까지다!

17. 인간은 하다가도 말고 가다가도 변하니 앞날을 예상하지 못한다.

18.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어도 변화무쌍하다. 인간이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9. 주님을 절대 믿고 절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과 휴거가 예정되어 있다.

20. 하나님도 주님도 인간을 절대 100% 사랑하신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요동이 있을 뿐이다.

21.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고 놀다가 일이 밀려서 인생 자포자기 하게 된다.